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 정 아

조선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대학과 대학교육에 관하여 상식 수준의 이야기일망정 필자는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학인들을 우리는 지성인이라 부르는 데 적어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터인데,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그다지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우리말에 “답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대학인이 대학인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대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되었는지 그 목적의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대학생답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

되어 있지 않은 땅에 씨를 뿌려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듯이 우리 모두 대학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에 상응한 동기를 갖춘 이들의 교육장으로서 대학을 되살려 내어야 할 것이다. 남들이 다 가니까, 부모님의 재력에 여유가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학교에 발을 디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쳐 새로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들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간단히 답하면, 대학교수들이 대학교수답지 못한 경우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성인으로서의 교육, 그 기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훌륭한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교육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교수채용 비리 같은 문구를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부실이 부실을 더욱 더 부채질하여 결국 우리 자신의 과멸로 이루어짐이 더디어 보여 우리 모두 주변의 잘못됨을 눈감는 것에 익숙하여 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재발견한 사람이 필자가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지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론하여 온 이러한 문제를 교육학적인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필자가 다시 언급하게 되어 주저되는 바 많지만, 대학이 지향하여야 할 큰 틀을 제시하고 나서, 대학 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그 핵심요소인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볼까 한다.

필자가 아마 중학교 시절에 들었던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을 떠올린다. 항상 전공지식만을 강의하여 온 필자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을 칠판에 적어두고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러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이들의 의미를 알 수 있는지? 이 중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유형은 무엇인지? 첫번째 질문에 100여 명의 학생 중 2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20% 수준이라니, 인성교육을 소리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자처럼 급변하는 지식의 전달에만 애쓰고 있고, 교육의 진정한 가르침은 외면하고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필자의 지나친 비약일까?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은 주로 이공 계열 학생들이라 인문 계열 학생들과는 경우가 다르리라. 실용을 중시하는 까닭에 그러하리라 하고 마음을 다독겨려 보지만, 여전히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우리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에 관한 철학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특히 공학관련 교육이 직업교육화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필자로서는 더욱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대학 4년 동안 심성교육을 바탕으로 다수의 '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짧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전공이 아닌 심성교육 그 자체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만일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어나 수학 대신 전공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전공지식을 사회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 시험시의 부정행위는 된 사람 교육의 힘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긍심을 키

우는 교육을 강조하는 경우, 부끄러운 일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숙제 제출 직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해답이 있다고 베풀어 오지 말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오면, 그것으로 본인 당사자는 훌륭한 숙제를 한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그 해답은 이미 반 이상 해결되어 있다고 말이다. 타인의 과제물을 자기 것인 양 제출하는 타성이 붙는 것을 그냥 둔다면 그러한 지식교육의 중착점은 어디일지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두번째의 질문에 대해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본 학생들도 그 뜻은 다 짐작하고 있었다. 세번째 질문인 가장 매력적인 유형에 대한 대답은 제일 좋은 것은 된 사람이라고 그 우선 순위까지 매겨 놓았다. 아마 학생들 말이 맞을 것이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할 터인데, 야망이 없는 듯한 그 젊음이 안타까웠다.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로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일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졸업생 중에서도 ‘든 사람’과 ‘난 사람’도 나와서 해당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줄 수 있기 바란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요

구하는 편인 필자로서는 일단 ‘왜?’ 라는 물음을 자주 던진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아내기 위한 지식여행을 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터득한다면, 뚜렷한 동기가 있는 경우 현재의 상황에 무관하게 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일생동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입시생들의 일회성 점수인 수능 점수의 서열화로 대학의 서열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더 더욱 우리 대학교육은 학생 개인의 능력 재발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신이 허락하신 경우에는 너도 든 사람, 나아가서는 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년 동안 지식을 배우면 얼마나 배울 것이며, 그 4년 지식이란 것의 양은 지속적으로 배움을 익히는 평생교육의 양에 비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서열화된 대학체제이기도 하지만, 신이 허락하신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하여 한 번의 분류에 불과한 자신의 현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학문적 자세를 갖춘 소양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한 수많은 인재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소속된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학들의 구성원 모두도, 자신의 위치는 단지 대학 입시라는 한 번의 분

류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깨닫고 대학에서의 자아 개발 및 학문 익힘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 대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지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것 같다. 우수한 인재들이 젊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학의 수업체제를 학년별로 묶지 말고, 선수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학년에 무관하게 고학년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재능을 살릴 기회를 일찍 발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외국의 대학에는 이러한 체계가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대학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돈 사람과 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교류를 확대하는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과정을 배울 기회를 같은 학교에 몸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제한시키지 말고, 예컨대 원격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대학들이 서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인 것도 사실이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낮아지므로 원격교육을 활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원격 수강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투자 가치 측면에서 생각하면, 교육의 원천인 교수들의 일류화를 위한 투자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교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도 많이 있고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국외에서 연수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문의 세계적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교수들의 숫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공학 계열의 경우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학술단체들이나 정부의 주도 아래 열흘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학문의 새로운 연구경향, 핵심기술 요약 및 당면한 기술문제 등을 튜토리얼과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교수들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외 연수를 시키는 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수십 명의 교수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투자 면에서 효율적인지 자명할 것이다. 또 연구 교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교수들에게 수업량을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는 없을까? 연구년이나 방학을 기다리지 않아도, 수업이 있는 학기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학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국 대

학들의 융통성을 우리도 가질 수는 없을 까? 비록 어떤 학기는 과도한 수업량으로 지칠 망정 번갈아 가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선호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이를 격려하여야 우리의 많은 대학들이 더 많은 든 사람과 난 사람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도 등장하는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구분론을 들을 때마다, 정부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말미암아 대학교육의 큰 틀이 뒤틀려질까 두렵다.

모든 대학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인으로서의 교육, 된 사람 교육의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모든 대학인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 학교에 속하였다고 정부의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속에서 학문

적으로 성장하는 대학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수많은 큰 학교들에 받을 닮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이러한 인위적이며 정량적인 평가에 근거한 정부 시책으로 든 사람과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

이정아/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사, UCLA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 초전도 가속기 연구소 연구원, 미국 휴스턴 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조선대 전자계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Computing Architectures for DFT-based HF-Band Energy Detection" 등 다수편의 논문을 Int. Journal of Electronics 등의 외국 유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